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충청남도의 관광여건과 대응전략

이 인 배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I. 주5일 근무제를 맞이하며

주5일 근무제의 실시로 국민들의 주말 여가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 관광이 보다 활성화되어 장시간 및 장거리화 되고, 숙박관광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관광 수요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관광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금제도의 변화, 고용구조의 변화 등에 의해서 소득의존형, 시간소비형, 중저가형, 절충형 등의 여러 가지 관광형태를 전망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 5일 근무제는 여가시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관광유형의 필요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따른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 혹은 소외계층의 경우 여행의 불균형과 같은 문제점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가관련 산업에서는 소비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개발이 예상되며, 여가 소비에 의한 경제적 효과도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가시간의 증대는 다양한 형태의 여가 문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가활동 중에서도 여행과 관련되는 관광부문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관광수요 부문에서 국내관광 및 해외여행의 수요증대를 추측해 볼 수 있으며, 또한 관광유형 변화의 가능성도 높다. 기존의 대량관광 형태보다는 사회 환경 및 관광환경 변화에 맞는 관광유형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즉 유행에 민감, 개성의 독특성, 문화관광, 체험관광, 환경 친

화적 관광, 시간, 돈, 지식 등이 기본전제로 차별성이 높은 관광유형의 등장을 예견할 수 있다(이강욱, 2001).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국내 문화·관광 수요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맞는 관광활동공간의 제공을 위한 충청남도의 관광여건을 분석하여 관광부문에서의 앞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여가활동과 관광수요가 달라진다

1. 주5일근무제와 문화·관광의 변화

주5일 근무제는 문화·관광적 측면에서는 삶의 질 향상, 문화활동의 활성화,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 문화적인 공간개발과 도시마케팅 등의 변화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첫째,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증가하여 문화적인 활동을 이끌어 냄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둘째, 자연스런 문화시장의 확대를 문화산업 경쟁력 확산으로 이끌어 내고 셋째, 다양한 문화활동 축진을 통해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한편 문화적인 공간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화·관광행태의 변화로는 체험형 문화시장과 자기계발형 문화교육의 확산, 매니아주의와 문화공동체의 확산, 가족형 문화활동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문화·관광부문의 분야별 변화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문화시장에서 영화·연극·대중음악 공연 등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주5일 근무제에 따라 가장 활성화될 시장은 분명 대중문화시장이다. 특히, 영화 등과 같이 급격한 상승기에 있는 대중문화시장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영상산업, 음반산업, 대중문화 공연산업,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 등 대중문화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

된다.

둘째, 문화예술시장에서 즉각적인 성장보다는 여가선용과 문화예술능력 확장을 위해 지원할 것이다. 공연과 전시예술 등 문화예술시장의 경우, 즉각적인 시장확장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우리 나라의 사정을 고려할 경우,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문화예술에 대한 물리적·경제적·심리적 접근성(accessibility)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관광시장 및 관광산업은 성장이 기대되며, 여건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주5일 근무제에 따라 가장 활성화될 분야는 관광시장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관광여건을 고려할 경우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

넷째, 스포츠·레저산업의 활성화이다. 스포츠·레저산업은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으로 특히, 경제적 성장에 따른 건강과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됨에 따라 주말시장을 이용한 스포츠·레저산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섯째, 소비문화와 엔터테인먼트의 확장이다. 소비공간을 중심으로 유흥적인 여가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주5일 근무제에 따라 가장 활성화될 공간은 상업적인 소비공간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에 따라 근무에 부담이 없는 금요일과 토요일 밤을 이용, 소비와 유흥을 찾는 분위기가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상업적인 소비문화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관광시장의 활성화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으로, 무엇보다도 문화·관광프로그램이 유흥과 향락이 아닌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에 대한 기대, 가족주의적 수요만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관광프로그램의 정착과 문화행사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서울시 정개발연구원, 2002).

2. 주5일 근무제와 여가활동의 변화

여가는 일에 대한 자유시간으로 자아실현, 자기계발을 위한 사교활동, 문화·관광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일과 여가시간의 구분이 명확해짐으로써 여가관련 산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여가활동이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소비활동과 여가활동이 특색 있는 스타일로 바뀌면서 복잡 다양한 형태의 여가문화가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여가시간의 증대로 다양한 형태의 여가문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강욱, 2001).

1) 주5일 근무제와 새로운 여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시간 여유가 늘어나면서 소수의 매니아 중심으로 영위되던 다양한 문화활동이 일상화·보편화되어 여가활동의 고급화, 다양화, 대중화, 광역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 여행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 비용이 저렴한 저비용 여가시설이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박, 자연휴양림, 펜션 등 저비용 여가시설 개발이 활성화되고 가족과 함께 체재하면서 직접 참여하는 체험여행 상품이 각광받을 전망이다. 옥외(out-door) 여가활동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 녹색관광 상품이 각광을 받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될 것이다. 전통제조업, 1차산업 등은 성장이 감소되고, 여가 및 레저관련 산업, 교육산업 특히 관광산업이 부상할 전망이다.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산업, 이틀간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직종은 급속히 성장할 것이다. 특히 스포츠, 게임 등 여가 및 레저 활동 증가로 인해 관광과 호텔, 항공운송, 자동차, 스포츠, 레저산업 활성화가 예상된다(강신겸, 2001).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활동의 유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5일 근무제 실시 이전에 평소의 여가활동은 교제 및 만남(34.4%), 기타휴식(32.5%), 산책 및 행락(26.4%), 운동(17.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를 실시했을 때의 여가활동으로는 여행 및 관광(48.5%), 운동(25.3%), 관람구경 및 만남(23.4%)의 순으로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주5일 근무제 실시 전후 여가활동 비교

구 분	주5일 근무제 실시 이전의 여가활동(N=412)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의 여가활동(N=435)
산책 및 행락	26.4(13.6)	21.5(10.6)
여행 및 관광	9.4(4.9)	48.5(23.9)
교제 및 만남	34.4(17.7)	18.7(9.2)
관람, 구경, 감상	27.4(14.1)	23.4(11.5)
독서 및 기능자격 공부	10.8(5.6)	10.8(5.3)
취미 및 교양활동	9.4(4.9)	19.0(9.4)
운동	17.5(9.0)	25.3(12.4)
놀이 및 오락	12.3(6.3)	8.6(4.2)
쇼핑	14.2(7.3)	9.3(4.6)
기타휴식(낮잠 등)	32.5(16.7)	18.0(8.9)
합 계	(100.0)	(100.0)

주: ()의 숫자는 중복 응답비율을 백분율(100%)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 허갑중(2002)

이를 백분율(100%)로 환산했을 때 주5일 근무제를 실시했을 때는 여행 및 관광은 실시 이전 4.9%에서 23.9%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 및 교양활동은 4.9%에서 9.4%, 운동은 9.0%에서 12.4%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제와 만남은 17.7%에서 9.2%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책 및 행락은 13.6%에서 10.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쇼핑 기타 휴식도(낮잠 등) 16.7%에서 8.9%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경우 여가

활동이 유형으로는 ‘여행 및 관광’이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5일 근무제를 실시했을 때 일반 사람들의 여가활동은 친구와의 만남, 낮잠과 같은 일상생활권에서 벗어나 여행이나 관광과 같은 활동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실내중심의 단순여가활동에서 야외 중심의 동적인 여가행태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허갑중, 2002).

또한, 주5일 근무제 실시를 통하여 여가를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은 노동단위 및 단체로 이루어지던 집단적 향수에서 가족단위, 개인단위의 활동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단순한 문화·예술 관람 및 참가가 아닌 창작을 위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단일 장르의 문화·예술 향수에서 나아가 멀티미디어 기술의 진보와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복합적인 장르를 향수, 창작 및 소비할 것으로 보인다(김규원, 2001)

2) 주5일 근무제와 생활체육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어 여가시간이 늘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 운동, 캠핑이나 등산, 자기계발 활동이나 취미활동을 즐기길 원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즐기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를 즐기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근린공원, 문화관 또는 공연센터, 체육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 5일 근무제 실시는 문화, 예술, 레포츠, 건강 등 특정이벤트와 연계된 여행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스포츠 관람은 물론 야외활동과 모험스포츠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과학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 5일 근무제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참여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41.8%가 프로야구 등 경기를

직접 관람하러 가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수영, 등산, 보디빌딩이나 헬스, 축구, 볼링, 테니스, 스쿼시, 스포츠 댄스, 배드민턴 등과 같은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경험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었다’, ‘가족과 함께 즐기고 싶어서’등으로 응답하여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응답자가 ‘다양한 체육시설의 확충과 개발’과 ‘각종 체육시설의 사용료 인하’,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국민 건전 여가의 정착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이한규, 2001)

3. 관광부문의 새로운 동향과 전망

1) 관광유형의 변화동향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관광부문의 동향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유형의 변화를 보면 첫째로 가족지향형 가치관의 형성으로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 및 여행수요 증대의 보편화가 예상된다. 휴일활용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30%, 취미생활/여행 28.6%, 능력 개발 15.4%, 휴식 5.9% 등 가족과 함께 하고자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한길리서치, 주 5일제 국민여론조사, 2000. 5). 또한 자동차의 대중화로 가족단위 이동이 용이해지고 가전기기의 보급확대에 따라 주부의 자유시간이 늘어나 가족단위 여가생활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 5일 수업제도가 도입되면 주말 가족 중심의 여행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관광유형은 금전소비형에서 시간소비

형으로 초점이 옮겨갈 것이다. 과거 시간절약형의 여행행태에서 증가된 자유시간을 여행으로 적극 활용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당일관광보다는 주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1박 2일 혹은 2박 3일과 같은 숙박관광의 증대도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행목적지에서도 비교적 시간이 소요되는 체험관광, 스포츠 등과 같은 자기계발에 중점을 두는 관광활동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간소비에 따른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관광체험프로그램 및 자기계발형의 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로 물질생활이 풍요해질수록 사람들의 지적 자기실현 욕구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문화적 목표가 생활의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행활동도 자아실현 및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확대될 것이다. 최근에 인터넷 사이트에는 취미를 공유하는 직장단위의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있고, 소규모 탐사여행 등을 위한 여행 동호회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여행행태는 유적 답사, 전통문화 탐구 등 문화 교양 창조형의 여행수요를 주도하고 있다. 여행수요에 있어서는 다양화, 차별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객 자신이 교육 및 자기계발을 위해 자신에게 적합한 여행상품을 스스로 개발할 가능성도 높다고도 할 수 있다.

넷째로 여가생활에 익숙한 20~30대 초반의 여가세대의 급부상은 단순 소비에서 모험과 체험에 중점을 두는 적극적 참여형 여행소비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 영역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유행하고 있는 급류타기(래프팅), 트레킹(도보여행, 집단여행), 스킨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암벽타기, 번지점프 등 관광과 스포츠가 연계된 복합형의 여행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여행 형태에 있어서는 젊은 세대는 단체관광 형태의 수동적인 여행보다는 유럽, 북미 등지로의 배낭여행이나 동남아, 아프리카 등으로의 현지체험을 추구하는 여행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자연친화적 여행을 통해서 쾌적한 삶을 즐기면서 잃었던 건강을

되찾으려는 건강 중심의 여가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돈을 버는 것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76%로 나타난 것을 고려해볼 때 건강추구형의 여가여행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천범, 1997). 도시근교의 주말농장이나 전원주택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장년 세대는 농촌에 대한 향수를 충족시킬 수 있고 어린 자녀들은 현장 체험을 통한 자연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밀착형의 여가활동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여섯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개인들은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문화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지출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중저가형의 문화 여가활동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특히, 소득이 함께 증가하지 않을 경우 즉흥적인 주말여행보다는 계획적인 여가활동 및 여행 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인 여행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강욱, 2001).

여행 및 관광유형의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중복응답에서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이전의 여행행태에서 우선 순위는 자연명승 및 경관감상(40.7%), 유흥오락(28.2%), 위락 휴양관광(25.9%)으로 나타났으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경우 희망 여행행태는 레저·스포츠관광(41.6%), 위락·휴양관광(38.0%), 자연명승 및 경관감상(32.9%)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정리하면,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여행의 행태는 자연명승 및 경관감상과 같은 정적인 활동에서 레저·스포츠와 같은 동적인 형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체험관광, 문화유적지·사적지 방문 등 체험관광 및 자기계발 목적의 여행 유형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허갑중, 2002).

<표 2> 주5일 근무제 실시 전후 여행행태 비교

구 분	주5일 근무제 실시 이전의 여행행태(N=412)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의 여행행태(N=435)
자연명승 및 경관감상	40.7(21.2)	32.9(17.1)
문화유적·사적지방문	22.2(11.6)	26.3(13.7)
농어촌체험관광	4.2(2.2)	9.3(4.8)
전시시설 및 예술관람	16.7(8.7)	15.3(8.0)
레저·스포츠관광	20.8(10.8)	41.6(21.6)
위락·휴양관광	25.9(13.5)	38.0(20.0)
도시·산업관광	1.4(0.7)	3.7(1.9)
쇼핑관광	22.7(11.8)	11.0(5.7)
유흥/오락	28.2(14.7)	9.6(5.0)
기타	9.3(4.8)	4.6(2.4)
합 계	(100.0)	(100.0)

주:()의 숫자는 중복 응답비율을 백분율(100%)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 허갑중(2002)

2) 관광공급자의 변화동향

관광유형의 변화에 따라 관광사업체 부문에서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데, 숙박시설 부문에서 가족형 중심의 사계절형 휴양콘도미니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가수요 증대에 따라 숙박시설 공급과 더불어 수영장, 스키장, 사우나 등의 주요 시설을 갖추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저가형의 숙박시설의 증가가 예견된다. 한편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 숙박시설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고급 스포츠로 여겨지는 골프와 스키 여가활용 상품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적합한 숙박시설의 형태는 리조트 단지 형태의 숙박과 여가활동을 겸한 고급 리조트 단지의 성장을 예견할 수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다양한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국내관광상품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들도 주말 맞춤형의 여행상품을 선호하게 되어 여행사는 창조적인 여행 상품개발로 여행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것이다. 더불어 관광사업관련 업체들에서도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가족 중심형의 여행수요 증대를 예견해볼 때 테마파크의 활성화가 전망된다. 도심형 테마파크와 농어촌형의 테마파크의 등장을 예견할 수 있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심공간의 변화가 예상되며 도시주민들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다양한 스포츠시설과 문화공간의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가치관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개인별 취향이 점점 더 개성화되고 이로 인해 관광부문의 새로운 직업군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특수한 문화에 대한 문화유산해설사, 관광안전 지도요원, 가족여가 컨설팅, 자원봉사자의 확대 등이 예상된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유허간의 증대는 관광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타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적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여가와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이강욱, 2001).

4. 주 5일 근무제 실시예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우리나라에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발생하게 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여행수요의 증대는 예견되는 현상이므로 이에 따른 숙박시설과 이용시설의 부족과 낙후를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숙박시설 선호패턴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한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증거가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테마형 관광지, 지역단위 문화시설·저비용의 생활권 청소년 체육시설 등 복합문화공간 부족이 예상된다.

둘째로 국내관광수요 증대에 따라 관광객은 관광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전 관광관련 정보 탐색활동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비한 정보제공체계가 미흡하다.

셋째로 주말여행의 증가를 전망해 볼 때 주말여행 정착에 따른 관광프로그램의 부족을 예상할 수 있다. 저가의 가족형·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공급 부족, 문화·레저기관간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연계 미흡, 저소득층·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 빈약한 공급이 예상된다.

넷째로 문화·관광·예술·체육시설 종사자들의 휴일근무 증가로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이 빈약하며 자원봉사자 및 파트타임 직원 활용에 대한 인식과 재정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관광수요의 증대에 비해 문화유산해설사, 생활체육지도자 등 전문인력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관광자원에 대한 낮은 인식, 관광객의 특정 장소 집중현상, 자연환경과 지역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초래 가능성 등이 전망된다. 여섯째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소득계층의 분화가 예상되어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등에 따른 여행상품의 차별화가 예견된다. 또한 사무직과 생산직,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간의 문화향수 차이 심화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 조장도 우려된다. 자영업, 단순노동자 등 주 5일 근무제 비적용 가정의 '나홀로 청소년' 문제, 주말 사교육의 증대, 경마·경정·카지노 등으로 인한 사행성화 심화 등의 사회적인 문제도 예견할 수 있다(이강욱, 2001).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관광대응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III. 충남의 관광여건은 어떠한가

1. 충청남도의 관광자원 현황

1) 충청남도 관광자원 개발현황

2001년 충청남도는 약 255.41km²의 면적이 관광휴양활동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관광개발·자원의 규모는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상의 전국대비 2.6%로 분석되었다.

<표 3> 충청남도 관광자원 개발 현황

(단위 : 개소, km²)

구 분		전 국		충 남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자연공원	국립공원	20	6,473.1	2	93.02
	도립공원	22	747.9	3	78.44
	군립공원	29	307.9	1	1.95
	소 계	71	7,528.9	6	173.41
관 광 지		194	148.5	23	13.19
관 광 단 지		9	50.4	-	-
휴 양 업 (종합 / 전문)		28	32.8	1	1.76
체 육시 설	골 프 장	135	146.4	4	4.76
	스 키 장	15	15.8	-	-
	요 트 장	6	0.2	2	0.01
	승 마 장	24	0.4	-	-
	소 계	180	162.8	6	4.77
도 시 공 원		5,341	308.3	693	55.33
청 소 년 수 련 시 설		533	22.7	48	1.45
유 원 지		171	124.7	7	2.22
자 연 휴 양 립		83	1,187.9	10	23.65
관 광 농 원		379	9.4	52	1.30
온 천 지 구		122	153.8	12	10.09
합 계		7,111	9,730.1	231	255.41

자료 : 문화관광부,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재구성, 2001

2) 자연관광자원 유형별 지역분포 현황

자연관광자원의 경우 각 시·군 지역별로 지정관광지와 비지정관광지가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다.

<표 4> 자연관광자원 유형별 지역분포 현황

구 분	국/도/군립 공 원	관광단지/ 지정관광지	운동휴양지구/ 유원지	해수욕장	비지정관광지
천 안		태조산, 각원사, 웅연저수지, 천안 온천	상록리조트		천안삼거리, 망향의 동산
공 주	계룡산 국립공원	곰나루, 마곡사 마곡온천, 공주문 화단지			
보 령		대천해수욕장, 죽도관광지, 무창포해수욕장			호도, 원산도, 대 천항, 남포방조 제, 오서산
아 산		신정호, 아산만, 아산온천	도고컨트리		온양온천, 도고 온천, 강당골, 충 무유원지, 영인 산휴양림
서 산	가야산	간월도			운산벚꽃단지
논 산	대둔산				탑정저수지
금 산	대둔산, 태고사		서대산		적벽강, 진악산, 남이자연휴양림
연 기	고북저수지				
부 여		구드레공원			
서 천		춘장대해수욕장, 금강하구둑			장항항
청 양	칠갑산	칠갑산도림온천			칠갑산휴양림
홍 성		남당(예정지구)			홍성온천, 용봉산휴양림
예 산	덕숭산	예당저수지, 덕산온천			
태 안	태안해안국립공 원	안면도관광지		만리포, 삼봉, 몽산포, 방포, 학암포, 연포, 백사장, 꽃지, 천리포 등	난도, 안면도휴양림
당 진		삽교호, 왜목마을	면천저수지	난지도	

주) 자연관광자원중 법규에 의해 지정된 자원은 지정된 자원유형에 우선하여 분류함.

국립·도립·군립공원이 없는 지역은 천안·보령·아산·부여·서천·홍성·당진 등이고 관광단지와 지정관광지가 없는 지역은 서산·논산·금산·연기·홍성 등이었다.

<표 5> 인문관광자원 유형별 지역분포 현황

구 분	국보/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기념물	민속자료	자연특이 현상지역	기타자원
천 안	천흥사지	유관순사우		독립기념관		성불사, 위례성
공 주	국립공주박물관, 동학사, 무령왕릉	공산성, 선화당, 갑사, 신원사, 마곡사		반포도예촌		민속극박물관
보 령		성주사지	오천성이지합묘, 김좌진장군묘, 외연도상록수림			
아 산		현충사, 맹사성고택		온양민속박물관, 외암리민속마을, 온양어의정		
서 산	개심사, 마애삼존불	해미읍성, 간월암				부석사
논 산	관촉사, 개태사, 쌍계사,	돈암서원, 계백장군묘				
금 산		칠백의총, 인삼티운		인삼전시관		
연 기		비암사	금남백로서식지	금이성, 운주산성		
부 여	부여박물관, 백제대향로, 정림사지, 무량사	부소산성, 백마강, 낙화암, 능산리고분, 공남지				
서 천	비인5층석탑	봉서사, 서천읍성, 문헌서원	마량리동백나무숲	한산모시타운	마량일출	
청 양	장곡사	정혜사, 줄무덤모덕사, 도림사지삼층석탑				
홍 성	고산사	홍주의사총, 홍주성	한용운생가지, 김좌진생가지			
예 산	수덕사	추사고택, 충의사, 향천사, 보덕사				
태 안			안흥성, 안면도모감주군락, 난도팽이갈매기			천리포수목원
당 진	신암사, 영탑사, 안국사지, 석불입상		솔뫼성지, 면천읍성		왜목 일출	

2) 인문관광자원 유형별 지역분포

인문관광자원의 경우 각 시·군 지역별로 볼 때, 전지역에서 비교적 고르게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표 5>와 같다.

이들 중에는 공주와 부여가 집중적으로 높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천·청양·홍성·예산·당진·보령·아산·서산·논산 등에도 비교적 많은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인문자원의 지정유형별로는 국보와 보물의 경우 공주·논산·부여·당진에 많고, 사적 및 명승으로는 공주·부여·서천·청양·예산에 많으며, 천연기념물 및 기념물로는 보령·홍성·당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특성별 유형으로는 유적·유물, 사찰, 천연기념물과 기념물, 유명인사 고택과 생가지(生家地)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역사문화자원은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관광객의 방문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관광상품 개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광루트 개발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축제별 지역분포 현황

충남의 축제행사를 개최 내용별 구분에 의하여 개최되는 축제현황을 보면, 지역축제와 문화제로는 삼거리문화제, 백제문화제, 보령머드축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강경젓갈축제, 도원문화제, 한산모시문화제, 칠갑문화제, 매헌문화제, 상록문화제 등이 있다.

이상의 축제 등은 현재까지는 행사의 개최 목적과 행사내용 구성상 그 유형을 형식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축제가 가지는 의미를 함축하는 전체적인 주제와 이를 세분한 행사내용 등의 실행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의 축제를 발전시키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축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와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매력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표 6> 지역축제 행사 유형별 지역분포 현황

구 분	지역축제 /문화제	민속놀이	무속행사/ 산신제	기타 이벤트 행 사
천 안	삼거리문화제, 천안농산물축제			
공 주	백제문화제(격년제)		계룡산산신제, 고마나루축제	동학사봄꽃축제
보 령	보령머드(MUD)축제	등불써기 등마루놀이		
아 산	온양문화제			설화예술제
서 산	해미읍성역사체험축 제	벗가릿대놀이	굴부르기제	박첨지인형극
논 산	강경젓갈축제, 논산 딸기축제	연산백중놀이		계룡화합의 날
금 산	금산인삼제 금강민속축제	물떼기놀이, 좌도농악		
연 기	도원문화제	강다리기		
부 여	백제문화제(격년제)		은산별신제	백마강수박축제
서 천	한산모시문화제	저산팔음길쌈놀이		동백꽃·쭈꾸미축제
청 양	칠갑문화제 칠갑산장승문화축제		동화제	
홍 성	만해제, 남당리대하 축제, 광천새우젓축 제(통합)	용대기놀이 결성농요		,
예 산	매현문화제			
태 안	안면도현대예술축제	황도붕기풍어놀이		
당 진	상록문화제	기지시줄다리기	당제	

4) 지역 관광기념품과 특산물·토속음식 분포현황

충남지역에 있는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물, 토속음식은 다종다양하며, 이는 상품으로 개발되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상품으로 개발되지 못한 것도 있다.

<표 7> 기념품 및 특산물 유형별 지역분포 분석

구 분	관광기념품/공예품	지역특산물	농수산특산물	토속음식
천 안		호도과자	입장거봉포도, 호도	
공 주		계룡백일주	산수박, 밤, 통천포배, 표고버섯, 우성오이	따로국밥, 장어구이, 참게매운탕, 녹두빈대떡
보 령	남포벼루	남포오석, 대천맛김,	청라양송이, 만세보령청결미, 꽃게, 오징어, 방울토마토	꽃게매운탕, 오징어덮밥, 천북석굴구이
아 산		엽연주, 선장김치	탕정포도, 오이, 아산청결미, 배, 도고쪽파, 사과	콩나물비빔밥
서 산		간월도어리굴젓	육쪽마늘, 생강, 서산간척지쌀, 꽃게	
논 산		가야국왕주, 참기름, 계룡산연, 강경새우젓, 양촌감식초, 맛가미된장, 간장	연산대추, 노성참게, 논산딸기, 양촌곶감, 은진복숭아, 연산오골계	위어회, 오골계백숙, 황복탕, 장어구이
금 산		금산인삼, 인삼주, 경옥고	추부깻잎, 금산땅두릅, 금산배, 진산마늘	인삼어죽
연 기	인조진주	전통메주, 악선으뜸김치	조치원배, 연기복숭아	평양만두
부 여	백제토기	홍삼	백마강수박, 양송이버섯, 방울토마토, 백마강장어	장어구이
서 천	부채	한산모시, 한산소곡주, 삼선갈꽃비, 서천자하젓	서천단감	
청 양		한울김치, 구기자농축액, 구기자한과	청양구기자, 고추, 화성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표고버섯전골, 구기갈비전골
홍 성	지승공예	광천토굴새우젓, (서해수산젓갈), 조선김	영지버섯, 은하방울토마토	홍동한우갈비, 대하구이
예 산	표주박		예산사과, 삽교쌀	더덕구이정식
태 안	태안해육	정산포돌김, 까나리액젓	대하, 육쪽마늘, 화훼, 안면도건고추	낙지와 낙지탕
당 진		면천두견주	짜리고추, 당진쌀	

주) 지역특산물과 농수산특산물의 구분은 가공여부에 따라 구분

이들 중에는 관광기념품과 공예품보다는 지역특산물, 농수산물, 토속음식 등이 많으며, 가공이 된 것과 가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지역특산물은 대부분이 민속주, 가공농수산물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은 쌀, 버섯, 과일, 양념채소, 민물장어, 대하, 꽃게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속음식은 충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앞의 농수산물을 재료로 한 음식물이 지역의 맛을 전하고 있으며, 충남의 전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2. 충청남도의 관광행태와 관광지 선택요인

1) 이번에 방문한 관광지 선택 영향요인

이번에 방문한 충남지역의 관광지 선택시 영향요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충남지역의 관광지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관광지까지 시간과 도로상태 등의 접근성(3.48), 매력성과 명소성(3.45), 관광지 이미지(3.44), 관광지의 교육적 가치(3.40), 관광지의 혼잡성(3.39) 등이 높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2) 역사문화관광지 선택시 영향요인

역사문화관광지 선택시 영향요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역사문화관광지에서는 관광지내 편의시설 정도(4.33), 역사·교육적 가치정도(4.32), 개발 정도와 개발·보존상태(4.29), 역사문화의 해설·안내정보(4.28), 접근성(4.22) 등이 높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표 8> 충남의 관광지 선택시 영향요인 분석

항 목	평균값 (5점)	선택시 중요도 (%)		
		중요 안함	보통	중요함
1. 매력성과 명소성이 있는 곳	3.45	11.4	45.2	43.4
2. 관광지만의 고유의 특성이 있는 곳	3.33	19.2	37.4	43.4
3. 모두가 방문하고 싶어하는 곳	3.35	19.2	38.3	42.5
4. 색다르고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	3.39	18.0	36.2	45.8
5. 자연, 역사 등 교육적 가치가 있는 곳	3.40	21.3	27.6	50.1
6. 관광개발과 관리가 잘 된 곳	3.17	23.2	39.5	37.3
7. 자연경관(산악, 계곡, 해안, 명승지 등)이 양호	3.37	17.7	36.6	45.8
8. 역사문화자원(유물·유적, 문화재, 사찰 등)이 많음	3.26	24.5	31.2	44.3
9. 지역특산물(농/수산물), 관광기념품 등 구매 가능.	2.64	43.4	35.7	20.9
10. 지역특색의 먹거리(토속음식, 해산물 등)가 풍부	2.57	47.6	35.1	17.3
11. 방문관광지가 혼잡하지 않고 한적	3.39	15.5	42.5	41.9
12. 홍보나 광고, 정보를 보고 방문하고 싶었던 곳	2.65	45.2	32.7	22.1
13. 지역주민이 친절, 방문지역에 친척·친지 등이 많음	2.74	42.4	30.2	27.4
14. 관광지내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	2.98	29.3	42.1	28.6
15. 관광지의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음	3.28	23.1	34.5	42.4
16. 현지 사용경비(숙박비/식사비 등)가 저렴	3.19	22.2	43.5	34.3
17. 지역축제, 민속놀이, 이벤트행사 등이 많음	2.46	53.0	31.7	15.3
18. 각종 위락시설(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이 잘 갖추어짐	2.64	42.4	38.8	18.9
19. 주변의 다른 관광지와 연계성이 양호	3.12	23.7	43.3	33.0
20. 교통비(기름값, 통행료, 대중교통비 등)가 저렴	3.32	15.7	44.3	40.0
21. 교통체증이 없고, 접근 교통편과 도로가 양호	3.47	14.6	37.7	47.7
22. 거주지로부터 소요시간이 적정	3.48	15.3	36.1	48.6
23. 평소 방문해 보고 싶은 곳, 이미지가 좋은 곳	3.44	14.9	37.9	47.2
24. 주변에서 가볼만한 곳이라고 추천을 하는 곳	3.24	23.4	36.8	39.8

<표 9> 역사문화관광지 선택시 영향요인 분석

항 목	평균값 (5점)	선택시 중요도 (%)		
		중요 안함	보통	중요함
1. 역사문화 관광은 역사성과 민족성이 담겨야함	4.20	7.3	16.6	76.0
2. 옛것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함	4.10	8.1	14.2	77.7
3. 동반한 사람들과 같이 즐길 수 있어야함	4.02	7.2	20.4	72.4
4. 색다른 정취와 향기가 있어야함	4.11	6.0	18.9	75.1
5.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어야함	4.32	5.3	12.7	82.0
6. 개발정도와 보존 및 관리상태가 양호해야함.	4.29	7.0	12.5	80.5
7. 역사문화의 종류와 유형의 차이에 따라 방문함	3.37	15.5	40.9	43.6
8. 역사문화의 생성 시기별 차이에 따라 방문함	3.05	24.2	49.7	26.1
9. 역사문화관광지의 역사적 의미에 따라 방문함	3.33	17.8	41.0	41.2
10. 역사문화의 입지형태에 따라 방문함	3.03	29.8	38.4	31.9
11. 역사문화 관광지는 혼잡하지 않고 한적해야함	3.77	10.0	28.3	61.7
12. 역사문화적 해설 및 안내·정보가 잘되어 있어야함	4.28	5.1	15.5	79.4
13. 관광지내 지역주민들은 친절하고 인심이 좋아야함	4.16	7.0	17.4	75.6
14. 관광지내 숙박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함	4.13	6.6	19.7	73.7
15. 관광지내 편의시설이 충분해야함	4.33	4.5	14.6	80.9
16. 현지 사용경비(숙박비/식사비 등)가 저렴해야함	4.20	6.3	17.0	76.7
17. 주변에 다양한 역사문화 행사가 많아야함	3.96	8.4	21.9	69.7
18. 주변에 토속음식, 특산물 등 구매가 용이해야함	3.51	17.9	31.9	50.2
19. 주변의 다른 관광지와 연계성이 양호해야함	3.93	7.3	26.2	56.5
20. 교통비가 저렴해야함	4.08	6.1	22.1	71.8
21. 교통체증이 없고 접근성이 양호해야함	4.22	5.8	16.0	78.2
22. 거주지로부터 소요시간이 적정해야함	3.99	6.3	24.6	69.1
23. 평소 방문해 보고 싶고 이미지가 좋아야함	4.18	4.7	17.2	78.1
24. 주변에서 가볼만하다고 추천 하는 곳이어야함	3.95	7.8	23.8	68.4

3) 지역특산물 구매와 지역축제 참여시 영향요인

지역특산물 구매와 지역축제 참여시 영향요인에 대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지역특산물 구매와 지역축제 참여에서는 지역내 교통시설(4.29), 지역주민 친절(4.25), 경비저렴(4.24) 접근성 양호(4.24), 지역특성과 고유성(4.24) 등이 높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표 10> 지역특산물 구매 선택시 영향요인 분석

항 목	평균값 (5점)	선택시 중요도 (%)		
		중요 인함	보통	중요함
1. 지역의 특성의 멋과 고유성이 있어야함	4.24	7.4	13.4	79.2
2. 그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되어야함	4.07	7.3	18.3	74.3
3. 구매자, 참여자 모두 선호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함	4.00	6.0	22.8	71.1
4. 색다르고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어야함	4.11	5.5	19.5	75.0
5. 지명도와 상품의 가치가 있어야함	4.12	5.6	18.9	75.5
6. 보관, 운송, 시식, 참여 등이 쉬워야함.	3.94	7.5	21.2	71.3
7. 독특한 포장과 디자인,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함	3.80	11.2	26.3	62.5
8. 구매, 참여비용이 적합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함	4.00	6.4	24.3	69.3
9. 적절한 위치에서 판매하고, 구매, 참여가 쉬워야함	3.94	6.5	22.9	70.7
10. 판매시기, 행사시기 등이 적정해야함	3.88	7.7	24.8	67.5
11. 구매장소나 행사장이 혼잡하지 않아야함	3.71	10.0	32.3	57.7
12. 상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안내가 있어야함	4.14	4.5	20.7	74.8
13. 지역주민들이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야함	4.25	4.5	17.7	77.8
14. 지역내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함	4.14	6.0	18.3	75.7
15. 지역내 교통시설이 잘되어 있어야함	4.29	5.3	14.0	80.7
16. 현지 사용경비가 저렴해야함	4.24	4.2	17.0	78.9
17. 주변지역에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어야함	4.18	4.3	18.1	77.5
18. 주변지역에 위락시설이 많아야함	3.52	16.6	31.6	51.8
19. 주변의 다른 관광지와 연계성이 양호해야함	3.95	8.2	23.0	68.9
20. 구매지까지의 교통비가 저렴해야함	4.07	7.4	18.5	74.1
21. 구매지까지 접근성이 양호해야함	4.24	6.4	13.3	80.2
22. 주거지로부터 소요시간이 적정해야함	3.97	6.4	25.0	68.6
23. 평소 구매와 축제참여에 이미지가 좋은 것이어야함	4.06	6.6	20.0	73.4
24. 주변에서 구매나 참여를 추천하는 것이어야 함	3.92	8.0	22.1	69.9

4) 시·군별 선택 여행목적 분석

충남지역 관광객의 시·군별 여행목적으로는 공주·논산·청양·예산 등에서는 자연경관 감상활동, 천안·공주·부여·예산 등에서는 역사문화 관광활동, 보령·연기·서천·태안 등에서는 해안/수변관광활동이, 보령·아산·서산·금산·서천·홍성 등에서는 휴양/휴식활동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특성에 따라 관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표 11> 시·군별 관광객 여행목적

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자연경관 감상활동	20.0	35.3	23.9	20.8	24.4	40.5	25.6	30.3	23.6	27.0	45.3	22.7	37.3	23.6	21.6
역사문화 관광활동	48.5	39.7	3.0	22.8	24.4	7.1	23.3	12.1	52.8	8.1	17.2	27.3	30.5	9.7	10.8
각종스포츠 활동	-	1.4	3.0	3.0	-	7.1	-	3.0	-	5.4	-	-	-	-	2.7
해양/수변 관광활동	2.8	-	25.4	14.8	9.7	16.7	-	30.3	4.5	24.3	10.9	4.5	8.5	29.2	16.2
휴양/휴식 관광활동	28.5	20.6	41.8	38.6	39.0	26.2	30.2	24.2	12.4	32.4	21.9	43.2	22.0	26.4	29.7
특산물/ 기념품구입	-	1.5	1.5	-	-	-	16.3	-	2.2	-	1.5	-	-	5.6	16.2
기 타	-	1.5	1.5	-	2.4	2.4	4.6	-	4.5	2.7	3.1	2.3	1.7	5.6	2.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hi^2 = 292.933 \quad df = 84 \quad P = 0.001 \quad n = 832$$

주 : 복수응답

IV. 충청남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1. 기본방향

자연은 인간의 힘으로 창조할 수 없으나 변경하고 적응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자원에 해당하는 공원, 하천, 해수욕장, 온천, 산림 등은 자연적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서나 항시 보고, 즐길 수 있는 자원의 발견, 발굴, 창조를 할 수 있다. 이같은 무한한 가능성이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날의 현실적 수요를 폭넓게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새로이 추가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간에 공존하고 보완하여 복합적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자원과 관광상품의 개발이 가능한 것이다.

1) 모든 잠재자원을 시·군 특성별로 관광자원화가 필요 ; 농어촌녹색체험관광마을 등 체험·교육형 자원 개발

충남의 각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하나 하나의 자원은 그 가치와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 가치와 매력은 자원에 따라서 크기도하고 작기도 하며, 여러 지역에 각각 분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원에 매력요소를 결합시켜 생명력을 불어넣으면 훌륭한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다. 바위, 유희지, 외딴섬, 空家, 폐교, 구릉지 등은 그 자체로는 상품의 자원가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을 관광과 연계시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경우 그것은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자원이더라도 개별단위로서의 관광자원은 충분히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거나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원의 결합에 의한 결합수요의 유발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거나 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아이디어로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역사문화·온천·해안 관광자원을 결합한 주5일제형 시장성 제고

충남에는 역사문화 관광자원, 온천 관광자원, 해안관광자원 등의 3가지 형태의 관광자원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각기 독특한 자원성과 이질성을 갖고 있으면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자원은 가급적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을수록 때로는 유리하다. 이들 상호간에 이상적 거리는 1시간이내에 서로 위치해 있는 것이 좋으며, 충남의 이러한 자원들은 1시간 내외로 모두 연계가 가능하여 이들 3가지 자원을 결합하면 주말형 관광시장성을 높일 수 있다.

3) 동일한 자원은 ‘집적 특화(集積 特化)’하고, 이질적 자원은 ‘보완특화(補完 特化)’ 개발

개별적 자원이 아닌 자원을 통합한 관광권의 차원에서 보면 경제학 이론에서의 ‘집적의 이익(集積 利益)’ 즉, 동일한 성격의 자원이 군집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이용자를 유도하고, 그 중에서 하나의 자원 더 나아가 다른 자원도 방문하는 집적의 이익 파급효과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각 시·군에 분포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상호간 성격을 잘 파악하여 연계하여 주5일 근무제에 적합한 관광상품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동일한 자원을 동일한 것과 합하여 ‘집적 특화’ 하고, 이질적인 자원은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 특화’하여 지역적 특성과 의미가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4) 접근성 제고, 인터넷 관광홈페이지, 안내표지판으로 주5일제 관광객의 수요 증가 유도

도로에서 멀리 벗어난 관광지, 도로에서 진입이 불편하고, 안내표지판이 없는 곳은 관광수요에 한계성이 있고, 접근하기 편리하거나 대중 교통수단의 접근이 자유로운 곳과 그 근처는 관광지로서 수요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충남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접근도로와 관광자원을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 또는 포장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지를 쉽고 빠르게 인지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세우고, 집에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방문할 수 있도록 각 시·군별 관광인터넷 홈페이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5) 다양한 역사문화의 소재를 발굴하여 도시민에 흥미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 ;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충남의 역사적 인물의 행적, 문학작품의 작중인물 및 주인공, 전설적 영웅의 무용담, 애국인물, 전설, 향토축제, 풍속, 민속놀이, 의식, 음식(민속주, 토속요리)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여 정기적인 축제행사로 개최하고, 관광자원화, 관광상품화 하여야 한다.

금산인삼제, 백제문화제, 모시문화제, 보령머드축제 등을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주민의 축제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중점 육성하고, 기타 다른 지역축제들도 지역을 소재로 하여 이벤트화 하고 대단위의 축제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나아가 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충효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의 생가지와 묘소,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찰 등도 소재의 발굴대상이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특산물과 농수산물 등을 고품질의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관광 쇼핑상품으로 개발하여 중요 교통 중심지에 쇼핑관광 지역으로 적극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6) 주5일 근무제 관광객을 유인하는 관광자원의 발굴과 연출

관광,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형태는 정적인 素材보다도 활동적, 변화성이 큰 소재를 더 많이 찾는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극·반응 상관이론을 충남이 관광개발에 도입하여 적용해 본다면 홍보·선전(자극)에 의한 수요환기(반응)로

연결지어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적 관광의 주요 신소재자원으로서 Sports, Sun, Sea, Snow, Flower 등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이것을 중점적인 관광활동으로 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하여 시설·공간과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광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복구 즉, 회복 및 건강증진(rehabilitation)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활력소의 충전, 재할·재생·재투자의 의미를 갖는 레크레이션·휴식(recreation, relaxation, rest) 등 레저활동과 관련한 활동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을 관광측면에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7) 충남의 관광자원을 새로운 시각으로 개발

충남의 관광자원을 제 1 자원(자연소재), 제 2 자원(문화소재), 제 3 자원(환경소재)로 나누어 새로운 시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 특히, “제 3 의 자원”이라고 말 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인정·인심, 풍습, 사회안정, 저물가, 양호한 기후, 양호한 입지, 무공해 등)는 그 자체가 자원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제 1, 2 자원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제 3 의 자원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관광수요를 충분히 유발할 수 없고 관광매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충남이 지역적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이들 세 가지 자원의 균형 된 상태를 유지하여 주5일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발전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그러므로 충남과 각 시·군에서도 현대적 관광자원으로 제 3 자원을 추가시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면 도시민 누구나 찾아오는 관광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5일 근무제 대비한 시·군별 관광자원 개발방안

1)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시·군별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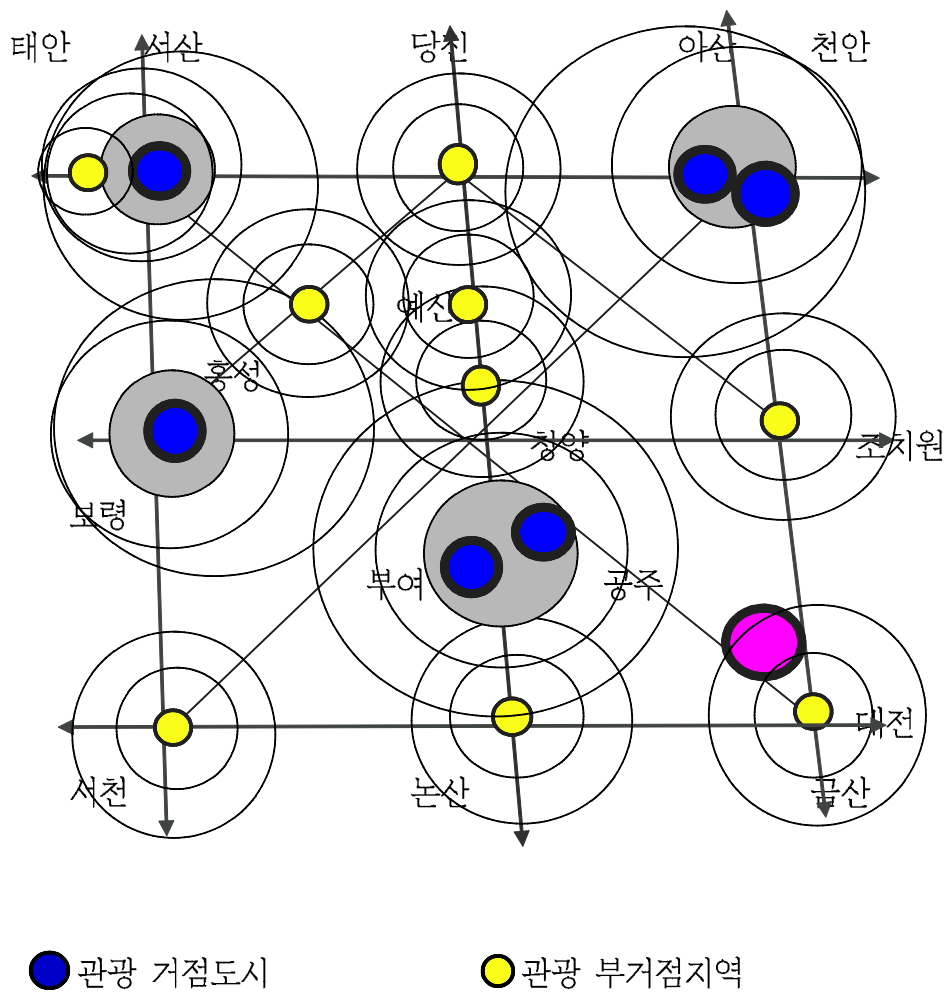
충남은 시·군 지역별로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과 잠재력을 가진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지역여건과 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자원과 관광상품의 특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각 시·군이 주5일 근무제를 맞이하여 장기적으로 변화할 지역여건과 주변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지역관광의 목표를 세운다.
- ② 시·군 관광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5일제 관광대응전략에 의하여 ‘관광시설·공간’, ‘지역문화와 축제’, ‘지역특산물과 토속음식’ 등 관광특화의 방향을 설정한다.
- ③ 시·군별로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한 관광특화의 방향에 따라 지역별 ‘개발의 테마·주제’로 하여 ‘지역이미지화(C.I.P)’, ‘지역관광 브랜드’ 개발 작업을 추진한다.
- ④ 시·군의 관광이미지와 직결되는 개발의 테마와 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특화를 위한 세부사업을 발굴한다.
- ⑤ 관광특화를 위한 세부사업은 앞에서 분석된 관광지 선택시 영향요인, 지역의 관광자원 현황, 지역의 개발의지와 개발방법, 개발의 주제와 자금조달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중심의 내발적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⑥ 사업의 추진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경제의 외부유출 방지, 지역문화의 보존과 육성, 환경과 생태의 보존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시·군별 대응방안

충남은 4개의 거점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관광지로 연계되는 공간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 거점관광도시가 지역관광기능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숙박, 관광정보, 쇼핑, 야간관광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 충남 관광네트워크를 위한 시·군별 관광루트 연계체계



물론 모든 관광객이 거점관광도시에서만 숙박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시·군 지역이나 이곳에 있는 관광지에서도 숙박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된 관광기능의 중심지 역할은 거점관광도시에 집중시키고 이곳으로부터 주변지역의 관광코스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시·군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과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의 관광이미지를 관광객에게 심어줌으로써 연계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충남의 시·군별 관광자원 개발의 추진방안은 각 지역의 관광특화를 위한 지역이미지와 전략, 추진사업의 예시 등으로 정리하였다.

<표 12> 주5일 근무제 대비 시·군별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추진방안

구분	지역 이미지	대응 전략	관광자원 개발 추진방안
천안시	“전통과 현대가 살아있는 문화관광도시 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도시로 육성 · 지역특산물의 상품화 · 역사문화관광지와 교육 프로그램 중점 개발 · 도시민 여가공간 조성 · 도시관광기반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급관광호텔, 컨벤션센터 쇼핑센터 등 조성 · 역사문화관광열차 운행 (독립기념관, 3월) · 삼거리공원 도시공원개발 · 지역특산물 포장, 유통개발
공주시	“백제의 숨결이 함께 하는 역사문화도시 공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관광 거점도시 · 문화유적발굴·복원·정비 · 역사문화관광프로그램화 · ‘백제문화제’ 관광상품화 · 도시관광기반시설 확충 · 대전권 여가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저가 숙박시설, 음식시설, 휴게시설 등 설치 · 백제문화유적 중점 개발 · 백제문화 홍보·안내기능강화 · ‘백제와 만남’ 관광프로그램 개발·잃어버린 백제를 찾아
보령시	“4계절 머물러가는 관광도시 만세보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안 관광거점도시화 · 해양리조트 휴양지 · 지역특산물·음식 상품화 · 관광특구 관광기반시설 집중 유치 · 내륙연계 관광코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지역내 관광호텔, 쇼핑 센터 등 조성 · 관광요금 대중화·안정화 · 머드상품의 세계화 추진 · 해양스포츠 상품전 실시 · 4계절형 이벤트 개최

구분	지역 이미지	대응 전략	관광자원 개발 추진방안
아산시	“건강한 미래를 드리는 온천휴양지 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 관광거점도시화 · 溫泉主題 테마관광지화 · 도시관광기반시설 확충 · 역사문화관광지 연계 관 · 광프로그램 개발 · 관광특산물유통기능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테마공원조성과 활성화 · 특구지역내 특급관광호텔, · 쇼핑센터, 오락시설등 조성 · 관광특산물 유통센터 건립 · ‘온천’+‘역사문화’=건강 가 · 족관광 프로그램 개발
서산시	“안락한 서해안 신관광도시 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안 관광거점도시화 · 도시관광기반시설 확충 · 관광특산품유통기능 도입 · 해안관광상품의 개발 · 內浦文化와 연계한 역사 ·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호텔, 도시위락시설 설치 · 서산A.B지구 생태공원조성 · 내포문화 관광루트 발굴 · ‘지역축제’+‘지역특산물’= · ‘서산의 명물센터’ · ‘서산갯마을’ 관광마케팅화
논산시	“다양한 볼거리·먹거리가 준비된 녹색관광의 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교도시 관광기능 강화 · 지역특산물 관광상품화 · 토속음식의 발굴·육성 · 자연·역사문화 탐방형 · 관광프로그램 개발 · 지역문화의 발굴·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경되살리기’운동 지속화 · 당일방문형 관광명소 개발 · ‘젓갈음식’경연대회 개최 · ‘시찰관광프로그램’ 개발 · 지역특산물의 포장, 유통 · 센터 조성
금산군	“청정한 강과 산의 만남 인삼의 명소 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권 여가관광기능 강화 · 인삼상품의 발굴·육성 · ‘금산인삼제’ 관광상품화 · 지역농산물 관광자원화 · 산악관광지 집중 개발 · 금강상류 청정관광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장날 ‘미니인삼제’개최 · 산악레저스포츠 공간 조성 · ‘인삼’, ‘민물고기’ 음식개발 · ‘강과 산의 만남’축제 개최- · 물폐기놀이, 행글라이딩 등 · 인삼상품의 고급화·대중화
연기군	“도시민 여가공간과 지역특산물이 준비된 관광요람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교도시 여가공간 제공 · 역사문화유적의 발굴·복 · 원과 관광프로그램 개발 · 지역문화축제의 육성 · 내수면 관광자원 개발 · 금강변의 관광자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봉산 등 등산로 조성 · 지역특산물과 농산물 집중 · 육성 판매 · 운주산성 역사탐방 관광루트 · 개발 · 고북저수지 재정비 활성화 · 금강변 관광도로 개설

구분	지역 이미지	대응 전략	관광자원 개발 추진방안
서천군	“자연과 환경이 조화된 그린·생태관광의 서천”	· 해안관광자원 발굴·육성 · 금강변 Waterfront 개발 · 금강하구 생태관광개발 · 전원 녹색체험관광 육성 · 산업자원의 관광자원화 · 지역특산물 관광상품화	· 춘장대해수욕장 4계절 해안 리조트로 개발 · 금강하구둑 철새공원조성 · 관광농원·어촌의 시범조성 · 기벌포문화권 관광자원화 · 한산소곡주·모시 관광상품화
부여군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어 보고, 느끼고, 만족하는 관광부여”	· 백제유적 발굴·복원·정비 · 역사문화관광상품 프로 그램의 개발 · ‘백제문화제’ 관광상품화 · 백제문화 체험공간 조성 · 지역특산물 관광상품화	· ‘역사문화도시만들기운동’전개 ·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체험· 관람·교육형 공간으로 조성 · 백제문화제 상설공연장 건립 · 백제문화엑스포의 개최 · ‘역사문화공예품’ 관광상품화
청양군	“ 푸른 자연과 휴양, 추억과 꿈이 있는 청양”	· 칠갑산도립공원 개발 · 역사문화와 山寺관광 상품 프로그램 개발 · 지역특산물 관광상품화 · 토속음식과 식음료 개발 · 자연휴양공간 집중개발	· 칠갑도림온천조성 활성화 · ‘山寺와 만남’ 관광상품화 · 칠갑산 옛길조성 관광명소화 · 구기자, 버섯 관광상품 개발 · 칠갑산 관련 산행, 이벤트, 지역마케팅 행사 개최
홍성군	“바다와 역사문화의 만남, 내포문화가 살아있는 홍성”	· 해안관광지와 도로 조성 · 내포문화 주제의 역사문 화관광상품 개발 · 역사유적의 발굴·복원 · 지역축제의 관광상품화 · 토속음식, 특산물 개발	· 남당리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과 ‘日沒관광지’ 개발 · 내포문화 발굴·복원·홍보 · 축산육, 젓갈음식의 명물화 · 대하축제, 광천토굴새우젓 축제등의 여행패키지상품화
예산군	“넉넉한 인심이 넘치고, 농촌문화를 체험하는 예산”	· 관광농업의 체험관광상 품 개발 · 덕산온천의 활성화 · 山寺·寺刹관광 프로그램 개발 · 농특산물의 관광상품화	· 충남농업종합센터의 체험· 교육형 농업관광지화 · 덕산온천 가족건강랜드 조성 · ‘수덕사 山寺관광’ 상품화 · 사과 등 농산물 관광상품화 · ‘농업이벤트’의 발굴 개최
태안군	“바다와 꽃이 조화된 해양관광의 명소 태안”	· 태안해안국립공원 활성화 ·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과 연계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활성화 · 지역축제 관광이벤트화 · 지역특산물 관광상품화	· 해수욕장의 4계절 관광지화 · 안면도 공원화 및 소郡의 꽃길(꽃나무가로수)조성사업 · ‘태안꽃축제’ 개최 · 꽃, 수산물 등 지역특산물 관광상품 개발과 판매
당진군	“바다가 가깝고, 역사문화가 정겨운 당진”	· 해안 島嶼관광지 개발 · 內浦文化관광 프로그램 개발 · 지역축제, 놀이 활성화 · 지역특산물 관광상품화 · 해안관광도로 개발	· 난지도 관광지 집중 개발 · 내포문화 발굴, 관광자원화 · ‘기지사줄다리기’ 관광상품화 · 면천두견주의 관광특산물화 · 서해대교의 관광명소화 · 왜목리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

V. 사전 준비만이 최선이다.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국민들의 여가시간을 증대시키고, 관광수요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도 관광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 관광유형 및 여가문화의 변화에 따라 고객 맞춤형 관광상품의 공급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관광패턴이 변화됨으로서 충청남도 역시 관광여건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관광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하는 시점인 것이다.

현재 충청남도는 대규모 잠재관광시장이 있는 수도권에 인접한 관광대상지이자 앞으로 신행정 수도가 건설되면 더 많은 관광시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주 5일 근무제는 새로운 여가패턴과 관광행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충청남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존의 관광공급시설로는 새로운 관광수요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충청남도에서는 주 5일 근무제에 맞는 관광행태에 따라서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이용시설의 확충, 전문인력 양성, 중저가형 상품 개발 및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강욱, '주5일 근무에 따른 관광부문 뉴트랜드 및 경제효과 전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관광정책, 2001년. 4호
- 강신겸, '주5일 근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전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관광정책, 2001년. 4호
- 김규원, '주5일 근무에 따른 문화부문 활성화 과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관광정책, 2001년. 4호
- 이한규,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생활체육 전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관광정책, 2001년. 4호
- 이강욱외,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정책 대응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 허갑중,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국민관광 육성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 이인배, '충청남도 관광자원과 관광상품의 특화방안', 충남발전연구원, 1999.
- 서천범, 2000년대의 레저산업, 기아경제연구, 1997.